

산업보건과 _____ 산업안전 무엇이 중요한가?



윤충식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산업보건학회장

서론

위 제목은 들어내놓고 던지기 어려운 질문이다.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추어질 수 있고, 또한 결론은 산업보건과 산업안전이 모두 중요하다고 정해져 있는 질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안전분야 종사자는 산업안전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고, 산업보건분야 종사자는 산업보건의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제 삼자는 그 구분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하기도 할 것이며, 이런 소모적 논쟁대신 산업재해를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조언할 것이다.

그러나 꺾끄러운 이 주제를 꺼내보는 이유는 안전과 보건의 특성으로 인한 노동자의 재해특성과 영향이 다르고, 접근방식이 다르고, 이에 따라 국가의 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들어 사망사고 반으로 줄이기가 산업보건의 핵심 지표중의 하나이고 이를 위해 상당한 자원(인적, 물적)을 투입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들어 안전사고가 줄어드는 현상이 보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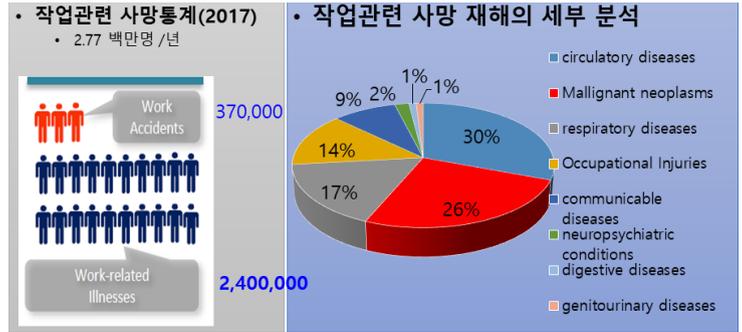
팩트 체크

산업재해는 주지하다시피 안전재해와 질병재해로 구분된다. 실제로 중복되는 지점도 있겠지만 몇 가지 통계를 보자. WHO에서 발간한 통계 자료를 보면 전세계에서 일년에 약 277만명이 사망하는데 이중 안전사고로는 37만명이 사망하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240만명이 사망한다고 보고 하였다(그림 1)¹⁾. 즉, 질병사망자수가 안전사망자수보다 약 7배 많다. 그림에서 보듯이 작업장에서 사망재해의 주요원인은 순환기계 질환(총 사망자수의 30%) > 악성종양(26%) > 호흡기계질환(17%) > 안전 사고(14 %) > 전염성 질환 (9%) > 기타순이다.

1) Päivi Hämäläinen . Jukka Takala . Tan Boon Kiat, Global Estimates of Occupational Accidents and Work-related Illnesses 2017 , WSH Institute, 2017

전세계에서 일년에
약 277만명이 사망하는데
이중 안전사고로는
37만명이 사망하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240만명이 사망한다고
보고 하였다.

<그림 1> 산업재해 사망자수(좌)와 사업재해 사망자의 세부 분석(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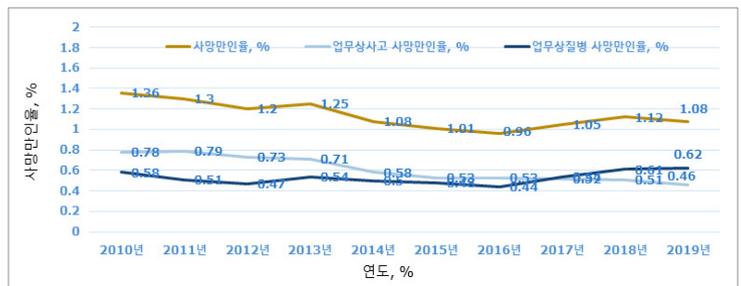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의 사망자 만인율의 자료는 다음 <표 1> 및 <그림 2>와 같다.²⁾ <표 1>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업무상 재해 사망은 업무상 사고사망과 업무상 질병 사망으로 구분하는데 2016년까지는 업무상 사고 사망자수가 많았고, 2017년도부터는 업무상 질병사망자수가 많아지는 역전현상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2016년을 기점으로 사망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질병사망자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사망만인율로 표시한 것이 <그림 2>이다.

<표 1>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업무상 사망자수와 사망만인율

구분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근로자수, 천명		14,199	14,362	15,548	15,449	17,062	17,969	18,432	18,560	19,073	18,725
사망자 수, 명	업무상질병	817	731	730	839	858	855	808	993	1,171	1,165
	업무상사고	1,114	1,129	1,134	1,090	992	955	969	964	971	855
	계	1,931	1,860	1,864	1,929	1,850	1,810	1,777	1,957	2,142	2,020
사망 만인율, %	업무상질병	0.58	0.51	0.47	0.54	0.5	0.48	0.44	0.54	0.61	0.62
	업무상사고	0.78	0.79	0.73	0.71	0.58	0.53	0.53	0.52	0.51	0.46
	계	1.36	1.3	1.2	1.25	1.08	1.01	0.96	1.05	1.12	1.08

<그림 2> 2010-2019년의 총 사망 만인율, 업무상 사고 사망만인율, 업무상 질병 사망만인율의 변화



2) 2019년 산업재해 현황 분석. (www.kosha.org)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만인율이 2016년까지 낮아지다가(0.96%) 다소간 높아지고 있으며(2019년 1.08%), 또 업무상 질병사망 만인율이 더 증가하고 있다. 단, 이 자료가 2020년도 자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최근의 사망재해반으로 줄이기의 효과를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다.

일반적으로 사망재해는 통계에서 누락되기 힘들다. 그러나 직업병 관련 사망재해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사망이 매우 과소평가되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직업관련성이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모호한 점이 많다. 그 단적인 예로 직업성암을 예로 들어보자.

2019년도에 본인의 연구실에서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³⁾ 우리나라에서 예상되는 직업관련 암의 발생은 약 4,200명~10,700명/년, 직업성 암으로 인한 사망은 2,100명~7,000명이 예측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2017년 직업성 암으로 인정된 것은 96명에 불과하였다⁴⁾. 즉, 우리는 직업성 암을 잘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산업보건과 산업안전의 논점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더 신경을 쓴다. 그래서 내면을 가꾸는 것보다 외면에 치장하기를 좋아한다. 성인들은 한결같이 매일 스스로 반성하기를 권고하지만 우리는 매일 거울만을 보는 이유이다.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안전사고는 쉽게 관심이 가지만 서서히 오는 질병에는 그렇지 못하다. 예를 들어 피부에 상처가 나면 바로 연고를 바르든지, 반창고를 붙이지만, 몸의 내부 어디가 잘못되면 알기도 힘들뿐더러 참을 때까지 참아본다. 이런 인간의 속성이 안전보건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한 예로 현재의 안전보건공단은 1987년 설립되었을 때 산업안전공단으로 출범되어 2009년도가 되어서야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되었다.

〈그림 3〉 안전과 보건의 관계



3) 윤총식 등. 관리대상 유해물질 제도개선(안)에 따른 화학물질 제도 영향 분석연구. 2019-연구원-1477. 안전보건공단 사업안전보건연구원. 2019. pp 235-250.
4) 2017년 산업재해 현황 분석(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더불어
산업보건에 역량을
쏟지 않으면 OECD 최상위인
사망재해를 줄일 수 없거니와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없다

앞의 <그림 3>은 안전과 보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다. 보건은 필요에 따라 안전에 포함되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고, 또 자그만 영역을 차지하지만(그림의 좌측 세 개), 대등하거나 더 크게 중요시 되기는 매우 어렵다(그림의 우측 두 개).

그러나 선진국이 될수록 산업보건을 강조하는 측면이 강하다. 그 예로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청(OSHA)이나 영국의 산업안전보건청(HSE)의 업무나 홈페이지를 보면 많은 내용이 질병관련 내용이다. 그만큼 어렵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3만 달러를 넘고 있다. 이제 보이지 않는 곳, 찾아내기 어렵고 예방하기 어려운 곳에 투자할 때이다. 이는 산업안전을 놓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안전과 보건의 많이 중첩되고, 또 산업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산업보건에 눈을 돌리지 않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단지, 가시적인 성과만 쫓다가는 진정 산업재해를 줄이지 못하는 우를 범할까 우려된다.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산업안전분야 종사자라면 왜 산업보건의 산업안전보다 먼저 썩어졌는지 의아해 할 수도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다. 즉, 안전(S), 보건(H)뿐만이 아니라 환경(E)까지도 포함하여 우리나라 뿐 아니라 각국에서 같은 주제가 비공식적으로 논의된다. 연구해보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는 과거에 안전이나 환경을 우선시하다가 최근에는 H를 강조하여 H를 약자의 처음에 놓는 곳이 늘고 있다.

결론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본 주장은 이분법적으로 어느 한 분야가 더 중요하고 다른 분야가 덜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픈 것이 아니다. 산업안전과 더불어 산업보건에 역량을 쏟지 않으면 OECD 최상위인 사망재해를 줄일 수 없거니와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최근엔 특히 '사망사고 반으로 줄이기 목표',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인하여, 정말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인 보건을 간과할까 봐 우려스럽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청이 발족된다면 산업보건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체제로 조직되어야 하는지도 매우 중대한 과제가 될 것이다. 🍵